

한 원로 양궁 감독교사의 생애사 연구

신병익¹ · 홍덕기^{2*}

A Life History Research about a Senior Archery Physical Education Teacher

Shin, Byung-Ik¹ · Hong, Deockki^{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senior arche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life. To this end, Kim Ho Jung was selected as a research participant who has worked in many schools as an archery school sports team director.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terviews and related docum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d domain analysis procedure. As a results, Kim Ho Jung began his archery athletes career at Suncheon high school as a founding member in 1973. As soon as he becam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he launched a school archery team and worked as a director. He taught archery student-athletes with dignity as well as expertise. His archery team achieved remarkable results at the national competition. Many student-athletes became archery instructors that were influenced by Kim Ho Jung's teaching philosophy. He also worked as an administrator at the regional archery association and contributed to archery development in Jeollanam-Do.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are provided from academic and practical aspects.

Key words: Archery instruct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school sports team director, life history, instructor's expertise

* deockkihong@gnu.ac.kr

1. 경상국립대학교(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박사과정
2. 경상국립대학교(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교수

I. 서 론

국내 양궁은 1959년 체육교사 석봉근에 의해 도입된 이후, 1963년 국제양궁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시작됐다(중앙일보, 2008, 8월 17일). 1971년 제5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고등부 양궁 경기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이어서 남자고등부와 중등부가 정식종목이 되었다(정찬모, 1995). 양궁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이다. 당시 서향순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여러 학교와 실업팀의 양궁부 창단으로 이어졌다. 여자양궁 단체전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 9연패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량을 보유했다.

국내 양궁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선수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온 지도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김현우, 기보배, 2021; 박성현, 홍성택, 박서령, 2014). 국내 양궁지도자들은 양궁 지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의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국내 양궁 감독을 영입한 멕시코가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번째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중앙일보, 2013, 7월 11일).

양궁지도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도자의 코칭 역량 등 양궁선수의 운동기능 지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현우, 기보배, 2021; 최원석, 2019; 홍길동, 2007). 예를 들어, 김현우, 기보배(2021)는 양궁 국가대표팀 지도자 등 최소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가진 베테랑 양궁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코칭 역량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도자의 전문성은 기술지도(기술 일정성, 기술 포인트 지도), 심리지도(심리 컨디션 조절, 심리기법, 긍정

적 선수 관계) 및 체력지도(트레이닝, 컨디셔닝)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길동(2007)은 국가대표 양궁지도자 12명을 대상으로 시합 상황에서의 현장 지도전략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심적 부담감, 과도한 긴장, 상대방에 대한 견제, 경기 중 실수 등 상황별로 맞춤형 지도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원석(2019)은 양궁지도자의 작업 기억 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식의 원천, 지도자의 철학, 선수 중심 사고 측면에서 전문지도자가 초임지도자보다 탁월한 작업기억 능력이 있음을 밝혀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양궁지도자의 전문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내고 있지만, 양궁지도자의 삶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들어, 구술사를 활용한 지역 체육인들의 삶을 드러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기동, 윤대중, 2012). 대표적으로, 대한체육회는 ‘구술로 만나는 대한민국 스포츠인 역사’ 발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비인기종목의 발전을 견인한 원로 체육인 25명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사이클(임용석, 이병찬, 2020), 검도(임용석, 홍택기, 2019), 탁구(박기동, 정현국, 문광욱, 2016), 복싱(박기동, 윤대중, 천호준, 2016), 유도(박기동, 윤대중, 정현국, 2012), 사격(박기동, 유근직, 김명권, 2007), 정구(고문수, 2016) 등에서 체육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들의 생애가 연구됐다.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체육사를 지배해온 스포츠영웅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해, 평범한 체육인들의 삶에 주목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선수와 지도자로서 개인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미시적 관점에서 탐색한 것이다(박기동, 김명권, 2008). 체육인으로서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일대기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담는 작업이다. 국내 양궁의 태동이 반세기

이상 지난 시점에서 세계적인 양궁 실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양궁지도자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가 기억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의 뒤에는 묵묵히 이들을 길러낸 지도자가 있다는 점에서 양궁지도자의 삶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양궁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양궁선수 양성을 위해 노력한 원로 체육교사의 삶의 궤적을 생애사 연구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인 김호중은 체육교사로 약 40년간 양궁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양궁선수를 배출하는 등 한국 양궁의 산파 역할을 했다. 본 연구가 양궁인 김호중의 삶의 궤적 속에 비친 한국 양궁사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원로 양궁인이자 체육교사인 연구참여자인 김호중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구술을 통해 진행되며, 연구참여자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박기동, 윤대중, 천호준, 2016). 원로 체육인의 생애사 연구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의 관점으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박기동, 정현국, 문광욱, 2016).

그동안 체육인의 생애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포츠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거나,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박기동, 윤대중, 2012). 본 연구는 스포츠영웅이 아닌 평범한 체육교사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서 평생을 양궁선수 육성에 헌신한 김호중 감독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김호중 교사와 동료 체육교사로 충분한 라포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그의 양궁 지도를 관찰해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양궁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한 지도자들의 숨은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김호중 교사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양궁지도자의 생애사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김호중은 1973년 순천고등학교 양궁부의 창단 멤버로 양궁을 시작했다. 이후 1983년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지역의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약 40년간 양궁부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정년퇴직했다. 김호중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에 자라온 양궁인은 셀 수 없이 많다. 연구참여자인 김호중 교사의 양궁지도자로서 주요 이력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개별 면담과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별 면담은 연구참여자인 김호중 교사와 그의 첫 제자인 한 고등학교 양궁부 코치를 대상으로 총 5회(각 60분씩) 진행했다. 면담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면담은 김호중의 생애를 연대별로 구분하고,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가 된 이후 지금까지 양궁과 관

표 1. 연구참여자 김호중 교사의 양궁 이력

년도	대회명 및 수상	비고
1985	소년체전 여중 단체 1위 외 12회 수상	고흥 과역중
1986	소년체전 여중 30M 2위 외 2회 수상	
1987	소년체전 여중 30M 1위 외 6회 수상	
1988	양궁 종별선수권 여고 단체 1위 외 5회 수상	고흥 여자상업고
1989	전국 시도대항 양궁 여고 30M 1위 외 4회 수상	
1990	양궁 종별선수권 여고 70M 1위 외 2회 수상	
1996	시도대항 여고단체 1위 외 3회 수상	순천여고
1997	전국체전 여고 30M 2위 외 9회 수상	
1999	전국체전 남고 30M 1위 외 1회 수상	순천고
2000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 70M 1위 외 12회 수상	
2001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 남고 단체 1위 외 3회 수상	
2007	소년체전 여중 단체 2위 수상	풍덕중
2008	전국체전 남고 개인 1위 외 10회 수상	순천고
2009	청소년 세계선수권 남자단체 1위 외 8회 수상	
2010	컴파운드 1차 대회 남고 70M 1위 외 15회 수상	
2016	전국체전 여고 단체 1위 수상	순천여고
2020	전국 시도대항 양궁 남고 단체 3위 수상	순천고

자료 출처: 대한양궁협회 지도자 실적 증명(2021)

련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문서자료는 연구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양궁 관련 자료(문서, 사진, 상패 등), 전남양궁협회와 전남체육회에서 수집한 양궁 관련 자료, 양궁 관련 선행연구 등을 수집했다. 생애사 연구가 기억과 회상에 근거하는 특성상,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기억과 회상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하고자 했다(임용석, 홍덕기, 2019).

3. 자료처리

모든 면담 자료는 면담이 진행된 당일 전사를 원칙으로 했다.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은 후 이를 소주제, 중간 주제, 대주제로 영역화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 논문작성의 모

든 과정을 순환적으로 진행했다(오교문, 임용석, 2018). 수집한 자료는 내용분석과 영역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Denzin, 2008).

4. 자료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해 첫째, 생애사 연구 경험이 있는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했다(Denzin, 2008). 둘째, 전사된 원자료와 분석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과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료 검증을 통해 최종 주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했다(Patton, 2002).

Ⅲ. 결 과

연구결과는 첫째, 김호중의 생애를 ‘양궁선수’와 ‘지도자’ 시절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둘째, 김호중의 양궁지도자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학습권 보호 및 인성 강조’, ‘심리 및 체력훈련’, ‘열악한 환경 극복’,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 ‘수평적 지도방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탐색했다. 셋째, 김호중의 지역 양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역 대학교와 실업팀 양궁부 창단’과 ‘지역 양궁 행정가로서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양궁선수에서 성공한 지도자로

1) 선수 시절

김호중은 1957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4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호중은 남양국민학교와 별교중학교를 졸업하고, 순천고등학교 재학 당시 창단된 양궁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은 양궁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의 양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일종의 ‘고급스포츠’였다. 양궁에 필수적인 활과 화살 비용조차도 학생이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호중의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한 분으로 당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식의 양궁선수 생활을 뒷바라지했다. 김호중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양궁에 최선을 다했다.

아버님은 시골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신념이 강하셨습니다. 내가 양궁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장남인 나를 그냥 믿고 지원해 주신 거지. 그때 당시 활 한 번 사려면 온 면 소재지를 돌며 주변에 돈을 빌려야 했어. 그때는 은행

이 없잖아. 집에 있는 재산 다 털어서 활을 샀지.
(2021, 3월 19일 1차 인터뷰 중)

순천고등학교 양궁부는 당시 양궁 지도교사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및 개인전 우승을 포함해 7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호중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양궁특기생으로 대학을 입학한 전례가 없었다. 김호중은 고민 끝에 전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를 여러 번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후에야 1976년 전남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림 1. 양궁선수 시절 김호중
(자료 출처: 김호중 개인 소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로 고민을 많이 했지. 그때 당시 전남대학교 교수를 여러 번 찾아가서 양궁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지. (2021. 03. 19. 1차 인터뷰 중)

김호중은 당시 전남대학교에 양궁부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양궁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다행히, 김호중이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인 1979년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양궁지도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2) 지도자 시절

김호중은 대학 졸업 후 1983년 고흥 점암중학교에서 체육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85년 양궁부가 창단된 고흥 과역중학교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양궁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됐다.



그림 2. 과역중학교 양궁부원들과 김호중
(자료 출처: 문영희 개인 소장)

당시 양궁 지도는 학생들이 학업을 모두 마친 이후에 시작했으므로, 야간 훈련이 일상이었다. 김호중은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껴서 양궁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도 많이 지도했다. 그는 장흥에서 스카우트해 온 학생을 본인의 집에 재우기도 하고, 훈련이 끝나면 집이 먼 선수들을 자전거로 일일이 집에 데려다주었다. 김호중은 양궁지도자의 자질이 양궁 기능 지도 능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김호중의 지도 철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단체전 및 개인전 우승 등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호중이 길러낸 대표적인 선수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남중부 4관왕에 오른 임지원 선수나 한국 여자양궁의 주역으로 성장한 서향순, 문영희 선수 등이 있다. 특히, 50미터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문영희 선수와 함께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양궁지도자로서 명성을 얻게 된다.



그림 3. 지도자로서 김호중을 조명한 언론 기사
(자료 출처: 김호중 개인 소장)

김호중은 과역중학교에서 활약한 여자 선수들이 졸업 후 고흥여자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자, 근무지를 고흥여자상업고등학교로 옮겨서 양궁부를 창단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열정을 보였다. 김호중은 10년간 고흥지역에서 양궁지도자 생활 후 여수를 거쳐 순천여자고등학교에 부임해서 다시 양궁부를 창단했다. 그는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창단된 지 얼마 안 된 순천여자고등학교 양궁부를 양궁 명문 학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는 결혼한 이후에도 양궁 지도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회를 위한 준비로 집에 못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 건 오롯이 아내의 몫이었다. 당시 교사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궁에 대한 열정과 아내의 헌신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

2.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질

김호중의 지도자로서 전문성과 자질은 운동기능 지도 능력에만 그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학습권 보호 및 인성 강조’, ‘심리 및 체력훈련’, ‘열악한 환경 극복 의지’,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 ‘수평적인 지도방식’의 다섯 가지로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질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권 보호 및 인성 강조

김호중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기본적 소양과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따라서 양궁부 선수들의 수업을 최우선으로 했고, 항상 수업을 마친 후에야 훈련을 시작했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라는 인식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초창기 양궁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우수한 기록을 달성했다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도입이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문제가 여전히 스포츠 분야의 주요 인권침해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명왕성, 2020).

김호중은 학습권과 더불어 인성을 강조했다. 양궁은 정신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종목이다(홍길동, 2007). 김호중은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인성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다.

운동하는 사람의 기본은 인성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양궁부 학생들에게도 강조하는 부분이 고. (2021, 4월 2일 2차 인터뷰 중)

선수들의 기본 소양과 겸손은 단지 지도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선수로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수양하는 훈련의 일종이다(박성현, 홍성택, 박서령, 2014).

2) 심리 및 체력훈련

양궁은 대표적인 폐쇄기술 종목으로 심리적 측

면이 경기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김현우, 기보배, 2021). 김호중은 선수들이 시합 상황에서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나 과도한 긴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 내적 집중 등의 지도전략을 개발했다. 또한 양궁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동차 불을 켜 놓고 야간 훈련을 하거나 담력 운동 및 극기 훈련을 진행했다. 실제로 양궁 국가대표팀에서도 UDT 훈련, 늦은 밤 공동묘지 방문을 통한 담력 훈련, 야구장 관중 응원 속 실전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극기 훈련을 진행하며 심리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박성현, 홍성택, 박서령, 2014).

김호중은 심리훈련과 더불어 체력훈련을 강조했다. 김호중은 양궁 시합에서 체력소모가 큰 점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화된 체력훈련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실제 양궁 시합처럼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빈 활 당기기를 하는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 이는 근력 강화 등 체력훈련의 강조가 선수들의 기량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현우, 기보배, 2021).

3) 열악한 환경 극복 의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역의 중·고등학교 양궁부에는 제대로 된 합숙 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김호중은 먼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는 김호중의 헌신과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합숙소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들이 내 집에서 생활했어. 하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찾아왔더라고. 여학생 4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샤워할 때 물을 많이 쓰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물이 새는 줄 오해했나 봐. 그때 훈련장소도 없어서

집에서 빈 활 당기기를 많이 시켰지. (2021, 4월 2일 2차 인터뷰 중)

김호중은 합숙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타지에서 양궁을 하려고 전학을 오는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또한, 양궁은 활과 화살 등 장비가 고가였는데 김호중은 환경을 어려운 선수들이 양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며 예산을 지원받았다. 당시 양궁의 열악한 환경은 김호중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궁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면 계속하기 어려웠을 거야. 다른 체육 선생님들이 힘든 걸 뭐하러 계속하냐고 했지만, 양궁을 전공한 체육교사가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한 거지. (2021, 4월 2일 2차 인터뷰 중)

4)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

김호중은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와의 신뢰를 중요시했다. 그는 지도자로서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학생들을 대하며 신뢰를 얻었다. 지도자와 선수의 신뢰 관계는 양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현우, 기보배, 2021). 김호중은 선수가 시합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언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은 김호중의 첫 제자인 한 코치의 면담내용이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자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인사드리러 오고 살갑게 표현을 안 하셔도 제자들이 다 알지. (2021, 4월 13일 3차 인터뷰 중)

김호중은 지도할 때 욕박지르거나 큰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그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했다. 또한, 선수들이 훈련 중 실

수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 해오던 자세의 일관성과 루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홍길동, 2007). 양궁은 지도자와 선수 간의 상호관계가 경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사소통, 믿음, 격려, 지지는 기술지도만큼 선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박성현, 홍성택, 박서령, 2014).

김호중의 양궁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은 남달랐다. 그는 승진의 욕심보다는 현장의 지도자로 남기를 원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운동부 감독교사가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을 5개 이상 획득하면 특별채용 형식으로 장학사로 진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김호중은 당시 메달 4개를 획득한 상황이었지만, 승진보다는 현장에서 양궁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았다. 김호중은 양궁 불모지였던 전라남도에서 과역중학교, 고흥여자상업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등 발령받은 학교마다 양궁부를 창단했다.

5) 수평적인 지도방식

김호중은 권위주의적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선수들을 대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선수들이 예비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지도자의 수평적인 지도방식은 선수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이창섭, 이정훈, 남상우, 여정권, 2008). 40년 가까운 지도자 생활 동안 김호중이 가르친 대다수의 양궁부 제자들은 현재 양궁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김호중이 지도자 시절 보여준 수평적인 지도방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고흥 과역중학교 시절 가르쳤던 선수들은 현재 양궁 국가대표 코치, 전남체육고등학교 양궁코치, 순천고등학교 양궁코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김호중이 고흥여자상업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등에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역시 순천, 여수, 구례, 목포 등 전라남도 각지에서 양궁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김호중은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동료 지도자가 되어 각지에서 양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다.

3. 지역 양궁 발전을 위한 노력

김호중은 지도자로서 자신이 맡은 양궁부에 대한 지도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양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본 절에서는 ‘지역 대학교와 실업팀 양궁부 창단’과 ‘지역 양궁 행정가로서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 대학교와 실업팀 양궁부 창단

김호중은 전라남도 지역의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우수 양궁선수들을 발굴했다. 하지만, 자신이 발굴한 좋은 선수자원이 지역 대학부나 실업팀이 없다는 이유로 타 시·도로 진학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김호중은 지역의 대학교와 일반부에 양궁부를 창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호중은 순천시청을 찾아가 순천이 양궁의 메카임을 강조하며 양궁부 창단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1997년 순천시청 양궁부 창단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순천시청 양궁부는 순천 출신의 최진 선수가 10년 넘게 활약했으며, 김재영 선수가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명실상부한 양궁팀으로 성장했다.

순천시청 양궁부 창단 초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지금은 지역 연계육성으로 선수 수급도 괜찮고,

감독 대우도 좋고, 이제 자리 잡았지. (2021, 4월 13일 3차 인터뷰 중)

또한, 김호중은 전라남도 양궁협회 전무이사 시절, 순천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찾아가 양궁팀 창단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2003년 순천대학교 양궁팀이 창단되며 지역 양궁선수 자원을 연계해서 육성할 토대를 마련했다.

순천대학교 양궁팀이 창단된 후부터는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순천시청 실업팀으로 갈 수 있어서 좋았지. (2021, 4월 13일 3차 인터뷰 중)

순천 지역 실업 양궁팀과 대학부 양궁팀의 연이은 창단은 지역 양궁 꿈나무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순천대학교 양궁부는 여자부로 시작해서 올해 남자부가 추가로 창단됐다. 이는 김호중의 지역 양궁부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김호중은 양궁 불모지인 전라남도의 양궁선수 1세대로서 대학교와 실업 양궁팀의 창단이 지역 양궁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양궁팀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지역 양궁 행정가로서 역할

김호중은 양궁지도자뿐 아니라 양궁 행정가로서도 활약했다. 전라남도 양궁협회 전무이사를 13년 동안 맡아 양궁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후 회장을 거쳐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양궁선수 수급 문제를 고민했다. 현재 전남의 고등학교 양궁부는 전남체육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세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40년 된 역사와 전통의 순천고등학교와 순천여자고등학교 양궁팀 해체 논의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는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전문적인 운동 권유를 기피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양궁팀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만 국민의 관심을 받는 양궁의 이면에는 중고등학교 양궁부의 해체 등 양궁의 저변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양궁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협회에서 양궁 장비도 다 지원해 주는데도 선수 수급이 어려워. 부모가 안 시키는 데 방법이 없지. 양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가장 크지. (2021, 5월 3일 4차 인터뷰 중)

양궁선수의 감소는 팀의 해체 및 지도자 수의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양궁선수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의 양궁지도자 자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오교문, 임용석, 2018). 또한, 해외의 양궁지도자 자리 역시 제한적인 실정이다.

IV. 논 의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양궁부 감독교사로 40년 가까이 생활해온 김호중의 삶을 탐색했다. 본 연구의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시적 관점에서 체육사의 재해석이다. 한국 양궁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한국 양궁은 세계 최고의 실력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그동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영웅에만 관심을 두고 그 외에 양궁의 저변확대나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등에 관해서

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박기동, 김명권, 2008). 따라서, 체육사의 미시적 관점에서 김호중같이 지역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거시적 관점의 체육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밀한 지역 체육사적 가치를 복원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다면적 평가의 필요성이다. 기존 스포츠지도자의 전문성은 주로 운동기능 지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받아 왔다. 본 연구는 김호중의 지도자로서 삶을 통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 및 인성 강조, 심리 및 체력훈련, 열악한 환경 극복 의지,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 수평적인 지도방식 등이 운동기능 지도 여부 못지않게 중요함을 밝혀냈다.

지도자의 지도 철학은 선수의 운동기능만 아니라 사회성 및 인격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정현우, 이창현, 이계산, 2019).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선수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기도 하며,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이창섭, 이정훈, 남상우, 여정권, 2008). 그런 점에서 한국과 호주의 양궁 지도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오교문, 임용석(2018)의 논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오교문, 임용석(2018)은 호주 AIS(Australia Institute of Sport, 이하 AIS)에서 실시하는 양궁 학생선수의 지도방식과 한국 U20 양궁 국가대표상비군 학생선수의 지도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AIS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선수의 잠재력 중시, 부모 상담, 심리상태 평가를 중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오로지 경기입상실적만으로 평가받기보다 다면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수한 스포츠지도자는 인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선수의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 성

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정현우, 이창현, 이계산, 2019).

셋째, 비인기종목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다. 현재 비인기종목의 학생선수 자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을 모든 국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홍덕기, 2020). 양궁과 같은 대표적 비인기 종목들이 활성화되려면 국위선양의 수단으로서 반짝 관심이 아닌 참여형 스포츠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가운데 엘리트스포츠 선수자원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양궁부 감독교사로 40년 가까이 생활해온 김호중의 삶을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김호중은 전라남도 지역 양궁선수 1세대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양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 양궁을 지속했다. 대학 졸업 후, 1983년 체육교사로 부임해서 발령받은 학교마다 양궁부를 창단해 문영희, 서향순, 임지원 선수 등 우수한 양궁선수들을 육성했다.

김호중의 지도 전문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학습권 보호 및 인성 강조’이다. 김호중의 교육철학은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홍덕기, 류태호, 2007). 둘째, ‘심리 및 체력훈련’이다. 김호중은 양궁이 가진 종목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맞춤형 심리 및 체력훈련을 통해 지도의 효율성을 높였다(김현우, 기보배, 2021). 셋째, ‘열악한 환경 극복 의지’이다. 김호중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1세대 양궁인으로서 지역 양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넷째,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이다. 김호중의 제자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기반한 믿음, 격려와 지지는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 및 기술향상으로 이어졌다(박성현, 홍성택, 박서령, 2014). 다섯째, ‘수평적인 지도방식’이다. 김호중이 보여준 수평적 지도방식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어 제자들이 다시 양궁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이창섭, 이정훈, 남상우, 여정권, 2008).

김호중은 행정가로서도 지역 양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양궁의 불모지였던 순천은 김호중의 양궁에 대한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순천시청 양궁 실업팀 및 순천대학교 양궁부를 창단했다. 또한, 김호중은 행정가로서 지역 양궁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올림픽에만 ‘효자종목’으로 미디어와 대중의 반짝 관심을 받고, 올림픽 이후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를 반복했다. 한국의 세계적 양궁 실력의 이면에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선수들을 지도해온 지도자들의 숨은 노력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체육사를 지배해온 스포츠영웅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해, 평범하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양궁지도자인 김호중의 생애를 미시적 관점에서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박기동, 김명권, 2008).

2. 제언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 양궁부 창단 및 발전과정을 한 양궁지도자의 생애를 통해 살펴봤다. 향후, 한국 양궁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각 지역 양궁지도자들의 구술사 연구는 한국 양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궁을 비롯한 많은 비인기 종목들은 세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양궁 이외에 다른 비인기종목 지도자들의 삶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비인기종목 지도자의 역할 및 저변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송호현, 박종률, 2017). 김호중은 국내 양궁 초창기 척박했던 시절,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현장에서 양궁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김호중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헌신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했다. 이제 그 씨앗들이 자라서 한국 양궁을 지탱하는 열매가 되었다. 그는 지도자이자 행정가로서 교육적 가치의 실현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고민하고 양궁의 저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호중의 삶의 궤적이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양궁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데 한 이정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문수(2016). 대한민국 정구 선수, '윤영일'의 생애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9호, 1-24.
- 김현우, 기보배(2021). 우수 양궁지도자들의 핵심 지도요인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5권 제4호, 105-121.
- 명왕성(2020).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제5호, 221-239.
- 박기동, 김명권(2008). 체육사 연구방법으로서 구술사의 적용과 그 의의.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3권 제2호, 51-64.
- 박기동, 유근직, 김명권(2007). 중학교 사격부 지도교사 오사국의 삶.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45-56.
- 박기동, 윤대중(2012). 구술사를 통해서 본 체육인의 삶.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7권 제3호, 117-132.
- 박기동, 윤대중, 정현국(2012). 강원유도인 양유춘선생의 생애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7권 제1호, 123-135.
- 박기동, 윤대중, 천호준(2016). 복싱인 송순천의 생애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1권 제2호, 95-113.
- 박기동, 정현국, 문광욱(2016). 탁구인 윤길중의 생애사. 스포츠인류학연구, 제11권 제2호, 41-76.
- 박상우(2013, 7월 11일). 멕시코 한인 영웅 이윤 감독 성공기. 미주중앙일보.
- 박성현, 홍성택, 박서령(2014). 올림픽 양궁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성 탐색. 코칭능력개발지, 제16권 제1호, 3-16.
- 송호현, 박종률(2017). 한 체육교육자의 교직 생애를 통한 교육관 들여다보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5호, 359-379.
- 오교문, 임용석(2018). 한국과 호주의 양궁 학생선수 육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2권 제4호, 99-112.
- 이창섭, 이정훈, 남상우, 여정권(2008). 지도자

- 의 지도요인에 대한 운동선수의 태도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47권 제4호, 63-75.
15. 임용석, 이병찬(2020). 한 사이클 선수의 삶을 통해 바라본 전문스포츠의 의미: 이홍복 원로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9권 제3호, 57-73.
 16. 임용석, 홍덕기(2019). 한 검사의 생애사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검도의 역사: 이종립 원로의 검사를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 제21권 제4호, 81-100.
 17. 정찬모(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정현우, 이창현, 이계산(2019).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바람직한 스포츠지도사 개념과 코치 표준 및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58권 제3호, 143-157.
 19. 최원석(2019). 양궁지도자의 작업기억: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4호, 1219-1238.
 20. 허진석, 유지호(2008, 8월 17일). '양궁 한국'의 시작은 줄도 없는 활 한 자루. 중앙선데이.
 21. 홍길동(2007). 국가대표 양궁지도자 시합 상황에서의 지도전략 탐색. 코칭능력개발지, 제9권 제1호, 337-347.
 22. 홍덕기(2020).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59권 제2호, 285-302.
 23.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4권 제4호, 131-154.
 24. Denzin, N. K.(2008).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Vol. 3). Sage Publication.
 25. Patton, M. Q.(2002). Two decades of developments in qualitative inquiry: A personal, experiential perspective. Qualitative Social Work, 1(3), 261-283.

논문투고일 : 2021. 10. 29

논문심사일 : 2021. 11. 24

심사완료일 : 2021. 11. 30